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소개합니다.



김은택
고신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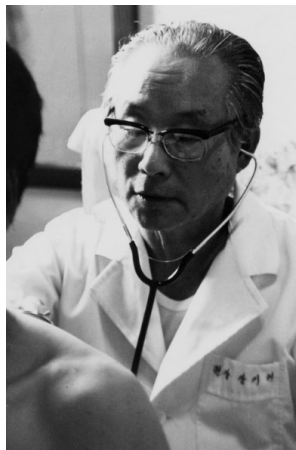
1. 연혁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1951년 장기려 박사님의 설립 이념에 따라 부산 영도에서 복음진료소로 출발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기반 종합병원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부산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의료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957년에 현재의 서구 암남동 34번지로 이전한 이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1968년에는 복음간호전문대학을 설립하였고, 이어 1981년에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68년에 설립된 복음간호전문대학은 1988년에 4년제 고신대학교 간호학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또한 1993년에는 보건분야의 중견인력을 양성하는 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병원과 의과대학은 하나 되어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 지역에서는 최초로 1978년 3월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암센터를 개설하고 암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요법을 부산, 경남지역 최초로 도입, 당시 최

첨단인 방사선 치료에 라이낙 4MV기를 도입하여 수많은 암환자를 치료하여 암 연구와 치료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암 환자는 복음병원에 가면 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명성을 얻어 왔습니다. 현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900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지방 최초 로봇수술 참관교육센터를 개소해 국내 및 해외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으며,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개소하여 스마트헬스 융합의학의 선두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장기려 박사의 정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부산 송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최초의 시작은 고려신학교(현 고신대학교의 전신)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 대학 기독교 경남구체회를 1951년 1월 조직한 대표이자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선생, 그리고 초대 병원장인 장기려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진료소라는 이름의 무료 병원은 1951년 6월 21일 부산 남항동 2가 46번지 제 3영도 교회 내 창고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단 3명의 직원으로 운



성산 장기려박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병원전경

영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동안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복음진료소와 1951년 12월 영도구 영선동 2가 180번지로 이전한 천막병원인 복음의원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대 병원장 성산 장기려 박사(聖山 張起呂)는 '시대의 성자'와 '한국의 슈바이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참된 사랑과 인술을 실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와 봉사에 헌신하였고, 그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국내의료선교사진

3. 복음병원의 특수성 및 강점

병원의 의료선교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이상의 국외 의료선교와 10회 이상의 국내 의료선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유방외과, 이비인후과(두경부갑상선외과) 등 여성암 특화 의료 선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선교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교병원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활동으로는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선교 또한 해외 의료선교사 역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필

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스와티니 지역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억나는 작년 사례로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두드림(Do Dream) 의료봉사팀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21세 여성, 프라미스의 진료를 하며 12세부터 자라온 거대 유방 종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으로 초청하여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병원의 많은 의료진과 학생들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본원 유방외과와 성형외과에서 협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라미스는 수술 후 "10년간 가슴과 마음에 짓눌렸던 응어리가 사라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고신대병원의 따뜻한 배려와 함께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제 3세계의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전 세계에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4. 산부인과

본원에 산부인과학 교실 또한 국외 의료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연동형 질확대경 자궁경부 검사도구를 개발하였고 관련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암치료에 있어서도 다빈치로봇(Xi 1개, Sp 1개) 자궁경부암 및 자궁내막암수술과 난소암 다학제 치료적 접근 등 암치료에 적합한 장비 및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부산 및 경남의 지역 의료의 한 축으로서 부인종양학 분야의 양적, 질적인 꾸준한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교수진은 부인종양학 교수 3명(김원규, 이태화, 김은택)과 산과학 교수 2명(오영림, 윤항구), 일반부인과학 교수 1명(강태경)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학 특히 부인암 분야의 진료, 연구, 교육,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산부인과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을 진심으로 치료할 것입니다. 🍷



남아공 수술경험 사진